

혼전 단계의 폭력 : 1990년대 문헌고찰*

Premarital Violence : Review of Literature in 90's*

원광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김 옹 미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Assc. Professor : Yongmi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요약과 제언 |
| II. 문헌고찰 |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article reviews the literature on premarital violence published in between 1991 and 1998. The long-term implications of courtship violence include the possibility of both aggressor and victim embarking on a lifelong pattern of abusive relationships. Courtship violence may be viewed as a precursor to marital/family violence. This article discusses channels of publication, subjects, measures, theoretical models tested, date rape, and violence in the family of origin. Implications for family life education and intervention are discussed.

I. 서론

결혼이라는 생활 양식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인기있는 사회 제도의 하나로서 수용되어왔다. 대다수 사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은 결혼이라는 인생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몇몇 서구 사회에서는 이혼율이 50%에 육박하는가 하면, 비교적 안정된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던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율이 점차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사회의 경우 파경에 이르기까지 평균 결혼 기간이 5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부부간의 문제의 발단은 혼전 단계에서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Lloyd, 1991).

혼전 단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양상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혼전 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혼전 관계의 향상을 통해 신혼기의 부부 적응을 도울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결혼 생활, 구체적으로 부부 사이의 상호 관계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혼전 단계 상호 작용 가

* 이 연구는 1998년도 원광대학교 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운데 특히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이것이 점차 빈발하거나 강도가 심해지는 경우 두 사람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진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혼전 단계에서 교제중인 남녀 사이에 폭력 행동을 경험한다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일생에 걸쳐 계속될 수 있는 폭력적 관계 유형이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혼전 폭력(pre-marital violence)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폭력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상대와의 관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폭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Barnes, Greenwood, & Sommer 1991). 그러므로 혼전 폭력은 부부 사이의 폭력, 가정 폭력의 전조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혼전 단계의 어두운 한 측면인 교제 폭력(dating violence)에 관한 국내외 연구 가운데 1991년부터 1998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의 대상, 사용된 도구, 검증된 이론이나 model, 연구의 경향과 특징을 간추려 봄으로써 혼전 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 결과를 현실에 적용하는데 유용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 포함된 문헌을 1991년 이후에 출간된 문헌으로 제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혼전 폭력이라는 주제가 사회과학자들의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이 된 것은 사실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성 교제와 구애단계에서 경험한 폭력에 대한 연구는 1981년 Makepeace가 Family Relations에 발표한 연구가 시발점이 되어 그 후 80년대에 상당 수의 연구가 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에 초점을 두고 쏟아져 나왔다(김용미, 1996a ; Mayseless, 1991).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1년 1월에 출간된 Family Relations의 특집호에 "Courtship Aggression" 주제 아래 8편의 논문이 포함되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80년대에 발표된 대략 60여 편의 연구에 대한 문헌 고찰이다(Lloyd, 1991). 따라서 본 연구는 1991년 1월에 발표된 Lloyd의 문헌 고찰에 이어서, 90년대에 주로 국내와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에 대한 문헌 고찰로서 10년 간격을 두고 그 동안 축적된 연구 결과를 개괄해서 비교,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본문에서 먼저 개념을 정의하고

다음으로 선행 연구들이 주로 누구를 연구 대상으로 했고 어떤 도구와,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혼전 폭력 연구에 사용된 관련 이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다. 이어서 혼전 폭력의 한 유형으로서 성폭력 관련 연구를 검토하고 성장 과정에서 출신 가정의 폭력 경험이 혼전 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다. 끝으로 선행 연구들이 제시한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 측면에서 가족 생활 교육 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고, 요약과 제언 순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개념 정의

혼전 폭력을 의미하는 용어를 살펴보면 'premarital violence', 'premarital abuse', 'premarital aggression', 'courtship aggression', 'courtship violence', 'dating violence', 'dating aggression' 등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premarital, courtship, dating은 각각 혼전 단계의, 구혼 상태에 있는, 이성 교제 중인 상태를 가르키며 abuse, aggression, violence는 각각 학대, 공격, 폭력의 의미로서 단어 사이에 커다란 의미의 차이가 없이 사용되고 있다. 선행 연구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Carlson(1987)에 의하면 'dating violence'는 혼전 단계에서 낭만적 사랑을 하는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의미한다. Stets(1992)는 'dating aggression'을 교제하는 단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 공격이라고 보았다. 이영숙(1998)은 미혼의 남녀가 혼전의 교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행한 모든 언어적, 신체적 행위를 이성 교제 중 폭력이라고 정의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나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부부 폭력'이나 '가정 폭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혼전 단계의 폭력', '혼전 폭력', '이성 교제 폭력' 등의 개념을 상호 교환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혼전 폭

력에는 이성 교제 중인 남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뿐 아니라 교제 관계가 아닌 미혼 남녀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예를 들면 지인 성폭력 등)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선행 연구들도 특정한 용어 하나만을 고수하기 보다는 연구자에 따라,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상호 교환해서 몇가지 표현을 혼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혼전 폭력'이란 미혼의 남녀가 혼전 단계의 구혼과 교제의 과정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경험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2. 연구 대상과 방법

혼전 폭력의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집단은 주로 미혼의 대학생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대 고교생 집단이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한 연구들은 남자 대학생, 여자대학생만을 각각 연구하거나 남녀 대학생을 함께 포함시켜 혼전 폭력 경험에 있어서 성 차(性差)를 비교하는 방법(Bethke & DeJoy, 1993; Bird et al., 1991; Follingstad et al., 1991; Hockenberry & Billingham, 1993; LeJeune & Follette, 1994; Thompson, Jr., 1991; Ward et al., 1991)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인종이나 국적이 다양해서 미국의 백인 학생이 주로 연구되었으나 흑인 대학생만을 연구한 경우가 있고(Clark, Beckett, Wells & Dungee-Anderson, 1994), Canada 대학생을 연구가 경우(Barnes et al., 1991; DeKeseredy & Kelly, 1995), 호주 대학생(Patton & Mannison, 1995), Philippines 대학생(김용미, 1999), Hong Kong에 거주하는 중국 여대생을 포함시킨 연구(Tang, Critelli & Porter, 1995)가 있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도 모두 미혼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김예정, 김득성, 1993; 김용미, 1996a; 1996b; 이영숙, 1998).

다음에 제시한 <표 1>은 혼전 단계의 폭력에 대한 국내외 연구 가운데 연구 대상, 측정 도구, 폭력의 발생 빈도와 유형등이 명시되어 있고, 결과를 서로 비교 가능한 방법으로 제시한 연구만을 골라 정

리해 놓은 것이다. 우리 나라와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 주로 Conflict Tactics Scale(Straus, 1979)을 사용하여 측정한 신체적 폭력의 경험 비율은 대략 20-30% 정도로 나타난 경우가 많았는데(김예정, 김득성, 1993; 김용미, 1996a; Follingstad et al., 1991) 이것은 80년 대의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Makepeace, 1981; 1983).

고교생이나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Stets & Henderson(1991)의 연구는 18-30세의 교제 중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교제 상대와의 갈등 해소에 관한 배경 요인을 밝혀내기 위해 전화 면접을 실시했다. 신체적 폭력은 나이가 젊을수록, SES가 낮을수록, 음주 상태에 있을 때 더 많이 발생하였으며 남자 못지 않게 여자도 물리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 요인으로서 언어적 공격이 씨가 되어 신체적 폭력이 발생하며 한편의 공격적 행동은 상대방에서 유사한 반응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Karla, Wood, Desmarais, Verberg & Senn(1998)는 18-85세에 이르는 115명의 여성을 젊은 여성과 중년 이상 집단으로 나누어 그들의 부정적 교제 경험과 성폭력에 대한 신념을 비교했다. 부정적 교제 경험은 두 집단이 유사했으나, 성폭력에 대한 신념은 중년 이상의 여성들이 더욱 그릇된 신념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이후의 여성들은 성폭력에 대해 더욱 허용적 태도를 가졌으며 성폭력 발생에 대해 자신을 더욱 비난하고 자아 존중감이 더욱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중인 사람들과 동거 쌍의 학대 행위를 비교한 Magdol, Moffitt, Caspi & Silva(1998)의 연구 결과 동거 쌍이 폭력발생의 빈도와 정도가 교제 중인 쌍에 비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3. 관련 이론

90년 대에 발표된 다수의 연구에서는 혼전 폭력 발생의 원인과 과정, 배경과 상황에 대한 설명, 폭력의 결과로서 교제 관계의 지속 여부, 가족 환경 등을 밝혀내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이나 모델이 제시, 검증되었다. 혼전 폭력이나 부부 폭력과 같이 친밀

〈표 1〉 국내외 연구 결과 혼전 폭력의 연구 대상, 측정 도구, 발생 빈도와 유형 비교¹⁾

연구자(연도)	연구 대상	측정도구	빈도	유형
김예정·김득성(1993)	부산지역 남녀 대학생 400명	CTS ²⁾	25% (n=99)	폭력 행동
김용미(1996a)	전북지역 남녀 대학생 497명	CTS	21.3%(n=106)	신체적 폭력
김용미(1999)	필리핀 대학생 103명	CTS	19.4%(n=20)	신체적 폭력
Barnes et al.(1991)	Canada 남자 대학생 202명	CTS	42.6%	혼전 폭력
Bergman(1992)	美 고교생		15.5% 24.6%	여고생 교제폭력 경험 성적, 신체적 폭력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경험
Follingstad et al.(1991)	美 남녀대학생 495명	CTS	23% (n=115)	여학생 28% 유경험 남학생 16% 유경험
Gray & Foshee(1997)	美 중고생 185명		41.6%(n=77)	교제 폭력
Tang et al.(1995)	홍콩 중여대생 74명	CSS ³⁾	20% 2-5%	가벼운 성적 피해 심각한 성적 피해
Ward et al.(1991)	美 남녀대학생 861명		34% 20% 10%	원치 않는 성적 접촉 원치 않는 성교 시도 원치 않는 실제 성교

1) 참고 문헌에 포함된 연구 가운데 상당수는 측정 도구, 자료 분석 방법, 유형 제시 등이 이 표의 구조에 적합하지 않아서 포함되지 않았음.

2) Conflict Tactics Scale (Straus, 1979)

3) Coercive Sexuality Scale (Rapaport & Burkhant, 1984)

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원인을 설명하려는 많은 시도가 이루어진 결과 폭력의 원인은 다차원적인데서 찾아야 한다는데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다(Mayseless, 1991). 구체적으로 다세대에 걸친 전수, 성역할 규범, 사회·경제적 계층, 폭력에 대한 사회 규범, 그리고 우울증이나 의존성 같은 성격적 요인을 들 수 있다.

1) 애착 이론

개인의 성격 요인과 관련지어 Mayseless(1991)는 혼전 폭력 현상이 친밀감과 폭력의 공존이라는 역설적 관계임을 인정하고 여기에 개인의 애착 유형이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Bowlby의 애착 이론을 기초로 3가지 애착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이 가운데 혼전 폭력의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회피형과 불안/모호형과 같은 애착 불안정 유형 집단을 꼽을 수

있다(Mayseless, 1991). 실제로 O'Hearn과 Davis(1997)는 427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면접을 실시하여 이들의 애착 유형과 정서적 학대의 관계를 연구했다. 애착 안정형 여대생들은 정서적 학대를 가해자나 피해자로서 경험한 비율이 낮았고 반대로 애착 불안정형 집단은 정서적 폭력의 경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 교환 이론

혼전 폭력 현상을 설명하는데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론으로 갈등 이론, 사회 교환 이론, 사회학습 이론 등을 꼽을 수 있다. Bird et al.(1991)은 사회 교환 이론의 자원 측면에 주목하여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제 폭력을 경험한 집단과 무경험 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을 찾고자했다. 교환 이론의 관점에서 개인이 소유한 자원은 상대와의 갈등 과정과 사후에 개인이 사용하는 주요 방어 수단으로 간주할 수 있

다. 이 연구에 포함된 요인은 자아 존중감과 속달감과 같이 자기 보호 능력을 높여주는 심리적 자원, 상대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협상 스타일, 그리고 상대와의 언쟁 후에 동요된 감정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대처 전략이었다. 두 집단은 대처 전략과 협상 유형이 뚜렷하게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혼전폭력은 분노, 비난, 상대를 고치려는 태도로 특징지어지는 대결적 대처 전략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 경험 집단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가 행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모욕, 맹서 또는 냉담한 무언상태와 같이 비효과적인 협상 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용미(1996b)는 교환 이론의 관점에서 현재의 폭력적인 교제 관계의 지속 여부와 매력적인 대안의 유무가 관련이 있는지 검증했다. t-test의 결과 교제를 중단한 집단이 인지하고 있는 대안의 평균치가 교제를 계속 중인 집단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의 차이는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3) 사회 학습 이론

사회 학습 이론이 여러 가지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마약 중독이나 술 중독, 성적 일탈, 폭력, 자살 행동을 설명하는데 적용한 사람이 Akers(1985)이다. 사회 학습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은 차별적 강화와 같은 직접적 행동 조건화와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본뜨는 2가지 방법에 의해 획득, 유지된다. Boeringer, Shehan & Akers(1991)는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제 단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강제와 공격에 있어서 사회적 분위기와 사회 학습 과정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이들은 특히 남자 대학생들의 우애회(fraternity) 집단이 성적 폭력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83명의 우애회 회원과 178명의 비회원 집단을 비교했다. 비회원 집단에 비해 회원 집단은 성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물리적 강제, 마약과 술 사용이 현저하게 많았으나 물리적 강제 사용은 두 집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볼 때 여자에 대한 성적 공격은 구애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배우게 되는 사회적 학습의 과정이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O'Keefe(1997)는 14-20세 사이의 고교생 939명을 대상으로 사회 학습 이론에 기초한 모델을 검증했다. 다중 회귀 분석의 결과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폭력을 관찰한 사람일수록, 남녀 간의 교제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믿을수록, 교제 폭력의 피해자일수록, 교제 단계에서 갈등이 많을수록 교제 폭력의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다. 여학생의 경우도 남학생과 거의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폭력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특히 가족 생활 교육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Simon, Lin & Gordon(1998)은 113명의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 학습 이론에 기초한 구조적 평형 모델을 검증했다. 빈번한 체벌은 교제 폭력의 위험을 증가시켰으나, 부모 사이의 폭력 발생과 교제 폭력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지, 관심도가 낮을 때 이것이 청소년 비행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또한 교제 폭력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끝으로 사회 학습 이론의 관점에서 아동기의 학대 경험이 혼전 폭력의 경험, 폭력 사용에 대한 태도 등과 어떤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지 연구한 김용미(1996b)의 연구는 변인들 사이에서 미약한 상관 관계를 발견했으나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4) 기타 이론

위에서 살펴본 이론 외에도 혼전 폭력의 원인, 결과, 예측 등을 위해 배경-상황적 모델, 체류/결별 결정 이론 등이 제안, 검증되었다. Riggs와 O'Leary(1996)은 그들이 1989년에 제안한 배경-상황적 모델에 기초해서 교제 폭력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34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얻어진 자료를 분석했다. 남자와 여자 모두 교제 폭력의 경험은 교제 폭력에 대한 태도, 공격적 행동과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Choice와 Lamke(1997)는 매맞는 여성의 체류/결별 결정 과정과 관련된 4가지 이론적 접근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Strube(1988)가 정리한 4가지 접근은 학습된 무

력감 이론, 심리적 뒷 이론, 투자 이론, 추리/계획된 행동으로서 각각의 이론 가운데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이것을 하나의 틀로 수렴한 결과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매맞는 여성의 체류/결별 결정 과정은 2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첫째는 대안에 대한 만족과 질을 고려하고 ('어느 쪽이 나올까?'), 둘째는 지각된 통제력('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두 가지 물음은 순환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론은 혼전 관계는 물론 부부 폭력의 역동적 관계가 매우 복잡한 문제이므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폭력이 수반된 모든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4. 혼전 단계의 성폭력

이제까지 고찰한 연구들은 주로 혼전 교제 단계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폭력에 대한 것이었는데, 교제 단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접촉과 성폭력(date rape)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고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성 교제 중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경험한 여대생의 비율이 미국의 경우 30-78%로 보고된 연구(Craig, 1990)가 있는가 하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전체 경험자 가운데 단지 16% 정도만이 보고된다는 주장(Weller, 1992)도 있다. 홍콩 여대생의 경우 가벼운 정도의 성적 피해는 20% 정도로서 미국의 경우와 비슷한 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심각한 수준의 성적 피해는 미국 여대생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ang et al., 1995). 이 연구는 아는 사람의 성적 가해(지인 성폭력), 특히 가벼운 종류는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으며, 남자에 비해 더 많은 수의 여자들이 자신의 의지에 어긋나는 상대의 성적 접촉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호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고교 시절 이성 교제의 경험을 회고한 결과 53%의 여대생은 남자상대가 지나친 성적 친밀감을 표현했으며, 45%의 남자 대학생은 여자 상대가 성적 친밀감을 지나치게 과소 평가해서 표현한 것으로 보고했다(Patton & Mannison, 1995). 이 연구의 결과 고교생들의 이성

교제에서도 성적 강제가 만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성적 강제가 포함된 이성관계가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되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steady" 단계에 접어들면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nada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DeKeseredy와 Kelly(1995)의 연구에서는 남자 친구들의 집단 역학 관계와 이성 교제시 성적 폭력의 발생이 어떻게 관련되었는지 검토했다. 미국의 연구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남자들의 또래 집단 지지가 대학생들의 이성 교제 관계에서 성적 학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Weller(1992)는 성폭력의 피해 여성들이 교제 중의 성폭력이나 지인 성폭력을 고소한 경우 이것을 법정에서 증명하기가 어렵고 승소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 가해 남성(피고)과 피해 여성(원고) 두 사람만이 유일한 목격자인 경우가 많고, 재판과정에서 여성의 성격과 행동이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의 성폭력 피해여성만이 이를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5. 출신 가정의 가정 폭력과의 관계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 가운데 하나가 사회 학습 이론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성장 과정에서 아동 학대 등의 경험이 있거나, 부모 사이의 폭력에 빈번하게 노출된 젊은이들은 혼전 폭력의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아동 학대와 교제 폭력, 심리적 문제간의 관련성을 검토한 Sappington, Pharr, Tunstall & Rickert(1997)의 연구를 보면 133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여기에는 아동 학대와 교제 폭력의 종류로 언어적 학대를 비롯하여 신체적,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시켰다. 연구 결과 아동기의 언어적, 신체적, 성적 학대는 청년기의 교제 폭력과 심리적 문제의 위험도가 모두 증가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제 상대의 학대 또한 심리적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 학대와 혼전 폭력, 심리적 문제를 연결하는 중

재적 변수로서 낮은 자아 존중감과 분노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간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혼전 폭력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를 살펴 보겠다. O'Keefe(1998)는 높은 수준의 부모간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력 경험 집단과 무경험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몇 가지 요인을 검토해 보았다. 연구결과 부모간 폭력에 노출되었고 폭력 경험이 있는 남자 청소년들은 무경험 집단에 비해 출신 가정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았고, 지역 사회와 학교에서 폭력에 노출되었으며, 교제 폭력에 대해 수용적이었고 자아 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자의 경우 교제 폭력 경험 집단은 지역 사회와 학교 폭력 경험, 낮은 학교 성적, 아동 학대 경험측면에서 무경험 집단과 구분되었다. 인종 및 사회 경제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고교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O'Keefe(1997)의 또다른 연구에서도 교제 폭력의 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무경험집단에 비해 부모간 폭력 사용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뚜렷하게 밝혀졌다. 또한 이성 교제 중인 156명의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제 관계의 권력에 대한 만족도와 교제 폭력의 관계를 연구한 Ronfeldt, Kimerling & Arias(1998)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즉 출신가정에서 신체적 폭력 사용을 경험한 학생들이 교제 관계에서도 상대에게 같은 행동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가하면 가족 폭력의 세대간 전이와 악순환에 대해 검토한 Smith와 Williams(1992)의 연구에서는 '악순환 가설'에 대한 지지를 명확하게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1,353명의 농촌 고교생을 대상으로 학대 가정 출신과 비학대 가정 출신 집단이 이성 교제시 폭력의 사용에서 어떻게 다른지 연구한 결과 학대 가정 출신이 교제 폭력의 빈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빈도가 5명 가운데 1명 미만인 것으로서 '악순환 가설'을 지지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두 집단은 차이점도 많았고 유사점도 많았다. 결론적으로 학대가정 출신이 교제 폭력의 위험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가족

폭력 악순환'이 불가피한 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Simon과 동료들(1998)의 연구에서도 113명의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폭력 사용과 청소년 자녀의 교제 폭력의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두 변수 사이의 상관 관계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부모의 지지와 관심이 낮은 경우 청소년 자녀의 비행과 관련이 있고 이것이 또한 교제 폭력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출신 가정의 환경 요인으로서 부모의 이혼과 교제 폭력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 Billingham과 Notebaert(1993)는 514명의 남자 대학생과 891명의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6개월간 교제 중 갈등 해소 행동을 조사했다. 부모의 이혼과 갈등 해소 행동이 관련되었는지 검토한 결과 이혼 가정 출신 대학생들은 자신의 폭력 사용 점수, 상대방의 언어 폭력 사용 점수와 폭력 사용 점수 등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부모가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대학생들은 미래의 대인 관계, 특히 갈등 해소 행동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교제 폭력의 경험이 있는 남자 대학생과 '매질하는 남편'의 특징이 유사한 점이 있는지 비교한 Ryan(1995)의 연구가 있다. ANOVA 결과 "매질하는 남편"의 특징은 혼전 폭력을 사용한 남자 대학생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별 분석의 결과 혼전 폭력의 중요한 예측 변수는 위협과 언어적 학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으로 성장 과정에서 아동 학대나 부모의 이혼, 부모간 폭력 사용을 관찰한 경험이 혼전 폭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가정 폭력의 세대간 전수, 폭력의 악순환 가설이 전적으로 일관되게 지지되지는 못했지만 출신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한 젊은이들이 혼전 폭력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사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취약성을 인식하는 것이 혼전 폭력의 방지를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며, 교제 상대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6. 가족 생활 교육에 대한 시사점

여기에서는 선행 연구들이 제시한 연구 결과를 현실에 적용하는 측면에서 가족 생활 교육 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교제 단계에 있는 커플 사이에서 혼전 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혼전 준비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가운데 혼전 폭력 예방의 내용을 반드시 추가할 것이 요구된다. 먼저 예방 프로그램의 목표로서 첫째, 혼전 교제 단계에 폭력 사용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으며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를 의식하게 한다(Bird et al., 1991). 둘째, 혼전 폭력은 결혼과 함께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 후에는 부부 폭력, 가정 폭력의 형태로 연속성을 띠고 지속되는 것에 주목하게 한다. 폭력적이고 학대가 포함된 혼전 상호작용의 패턴은 결혼 후에 더욱 굳어지고 악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주시시킨다. 셋째, 사회 문화적 분위기에 관한 것으로서, 여성에 대한 성적 공격이나 폭력이 마치 자연스러운 구혼 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학습시키는 사회화의 과정을 중지시켜야 한다(Boeringer et al., 1991). 성적 공격 행동의 개념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이에 따르는 도덕적, 법적 한계와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이러한 예방 프로그램의 실시는 대학 신입생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활용하거나 더욱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저학년 수강 과목으로서 “결혼과 가족”이나 “인간의 성(性)” 과목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혼전 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서 먼저 인간 관계의 상호성을 이해하게 한다(Rosen & Stith, 1993). 모든 인간 관계는 양방적이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 관계임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상호 관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욱 악화되고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혼전 폭력의 3가지 유형, 즉 피해자, 가해자, 양방 경험자 전체에 주목하게 하고 특히 상호간 폭력 사용에 대한 토론과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Gray & Foshee, 1997). 둘째로는 대처 전략에 대한 인식과 개발에 대해 교육하

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혼전 폭력 가해자들의 경우 자신이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 관리 훈련이 꼭 필요하다.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적절하게 발달시키게 되면 대인 관계, 친밀한 인간 관계에서 분노의 통제와 갈등의 건설적 해소가 어느 정도 가능해져 폭력으로 표출되는 빈도가 감소하게 된다. 이와 아울러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등 해결 기술의 훈련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Barnes et al., 1991; Follingstad et al., 1991; Riggs, 1993). 셋째, 대인 관계의 의사 소통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특히 성과 관련된 대화를 나눌 때, 자기 주장과 자기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기술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성간의 의사 소통에서 서로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많은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또한 상대방의 의사와 반대되는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갈등 해결의 한 방법으로서 폭력 사용은 절대 용인하지 않는 인지적 구조로 바꾸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떠한 경우라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게도 불이익이 되며 결코 정당화 할 수 없음을 못박아 둔다는 것이다.

III. 요약과 제언

이상으로 혼전 단계의 대학생, 고교생들이 이성 교제 상대와의 사이에서 경험하는 공격적 행동, 폭력 사용에 관한 연구로서 1991년에서 1998년 사이에 발표된 대략 50여편(국내 5편, 국외 46여편) 가량의 문헌을 고찰해 보았다. 혼전 폭력은 부부 사이의 가정 폭력의 전조로서 간주될 수 있으며, 발생 빈도나 유형은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정도로 확산되어 있으며 무의식중에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 폭력의 문제는 단지 당사자 간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관심사이며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1998년 7월부터 가정 폭력 방지법이 발효되어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혼전 폭력에 관한 연구들은 국내의 경우 주로 가정학, 가정 관리학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가족학이나 심리학, 사회학 등 가족 관련 사회 과학 분야 전문 학술지가 주요 출간 통로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문 학술지 외에도 일간지, 시사 주간지 등의 특집 기사로 발간되어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법률이나 정신 의학 등의 인접 학문 전문 학술지를 통해서도 혼전 폭력에 대한 관심이 표출되고 있다.

연구 대상은 주로 미혼의 남녀 대학생, 10대 고교생 집단으로서 남자, 여자를 따로 연구하거나 함께 연구하여 성 차(性差)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미국 내 유색 인종 집단만을 연구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캐나다, 호주, 중국, 한국 대학생에 대한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다. 신체적 폭력의 측정 도구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도구는 CTS인 것으로 나타났고 CTS로 측정된 신체적 폭력의 발생 빈도는 20%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혼전 폭력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서는 애착 이론, 사회 교환 이론, 사회 학습 이론, 배경/상황적 모델, 체류/결별 결정 이론 등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혼전 폭력의 구체적 유형으로서 성폭력(date rape)이나 지인 성폭력(acquaintance rape)에 대한 고찰과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보호가 취약한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출신 가정에서 가정 폭력(아동 학대, 부부간 폭력)이나 부모의 이혼 등의 경험이 교제 폭력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대체로 많은 연구들이 출신 가정의 환경적 요인이 교제 폭력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내고 있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 연구자도 소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는 혼전 폭력에 관한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보겠다. 첫째,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혼전 폭력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로 가족학, 가정 관리학 분야 등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적용을 심화하기 위해 좀 더 많은 분야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심리학, 법학, 정신 의학 분야와 더불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이해하고 돕기 위한 상담이나 치료, 법적 이해와 책임 명

시, 정신 의학적 연구 등이 통합적(interdisciplinary)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양적은 물론 질적으로도 향상될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혼전 폭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새로운 연구 주제로서 많은 후속 연구들이 국내에서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신체적 폭력 이외의 심리적, 언어적, 성적 폭력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혼전 폭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다. 또한 교제 성폭력(date rape)이나 지인 성폭력 등은 우리 사회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게 기대되는 바이다. 끝으로, 혼전 폭력에 관한 법률체제의 구체적 정비의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학생과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10대 폭력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폭력, 법률 전문가들이 대부분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방치하면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 가운데 폭력이 배양, 용인되어 각종의 가정 폭력이 확산, 수용되어 사회 전체의 태도로 굳어지게 된다. 미국의 경우 8개의 주(州)만이 10대 소녀들이 남자 친구에 대항해서 가처분 명령을 얻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Ingrassia,1993). 이에 대해 Suarez(1994)는 성인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보호 체계를 10대 청소년에게도 똑같이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각 州에서는 가정 폭력에 관련된 민·형사적 제도를 교제 단계의 10대에게도 적용하여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가정 폭력 방지법과 성폭력 방지법이 제정, 발효되기 시작한 것이 극히 최근의 일이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러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법원의 결정과 이것의 사회 심리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보면 다행스러운 측면도 크다고 하겠다. 이상의 법률 시행에 있어서 Suarez의 제안과 같이 혼전 폭력도 포함시켜 시행하는 것도 가까운 장래에 고려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폭력 사용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무폭력 가정, 무폭력 사회(violence-free family, violence-free society) 건설에 무엇보다 중요한 선형 조건임을 강

조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김예정·김득성. (1993). 지속적인 이성 교제에서의 갈등표출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1(2) 127-139
- 2) 김용미. (1996a). 미혼 대학생의 혼전단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의 경험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87-197
- 3) 김용미. (1996b). 미혼 대학생의 혼전 단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의 경험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II : 이론 검증과 유/무경험 집단의 비교. *원광대 논문집*, 31(2), 1221-1233.
- 4) 김용미. (1999). 필리핀 미혼 대학생들의 혼전 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 미 발표 논문.
- 5) 이영숙. (1998). 이성교제 중 발생한 폭력. *대한가정학회지*, 36(4), 49-61
- 6)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 7) Akers, R. L. (1985). *Deviant Behavior : A Social Learning Approach*. Belmont, CA : Wadsworth.
- 8) Barnes, G. E., Greenwood, L., & Sommer, R. (1991). Courtship violence in a Canadian sample of male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40, 37 - 44.
- 9) Bergman, L. (1992).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SocialWork*, 37, 21 - 27.
- 10) Bethke, T. M., & DeJoy, D. M. (1993). An experimental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the acceptability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8, 36 - 51.
- 11) Billingham, R. E., & Notebaert, N. L. (1993). Divorce and dating violence revisited : Multivariate analysis using Straus's conflict tactics subscore. *Psychological Reports*, 73, 679 - 684.
- 12) Bird, G. W., Stith, S. M., & Schladale, J. (1991). Psychological resources, coping strategies, and negotiation styles as discriminators of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40, 45 - 50.
- 13) Boeringer, S. B., Shehan C. L., & Akers, R. L. (1991). Social contexts and social learning in sexual coercion and aggression : Assessing the contribution of fraternity membership. *Family Relations*, 40(1), 58-64.
- 14) Carlson, B. (1987). Dating violence : A research review and comparison with spouse abuse. *Social Casework*, 68(1), 16-23.
- 15) Choice, P., & Lamke, L. K. (1997). A conceptual approach to understanding afused women's stay/leave decisions. *Journal of Family Issues*, 18(3), 290-314.
- 16) Clark, M. L., Beckett, J., Wells, M., & Dungee-Anderson, D.(1994). Courtship violence among Africa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Black Psychology*, 20(3), 264-281.
- 17) Craig, M. E.(1990). Coercive sexuality in dating relationships : A situational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10, 395-423
- 18) DeKeseredy. W. S., & Kelly, K.(1995). Sexual abuse in Canadian university and college dating relationships : The contribution of male peer support.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1), 41-53
- 19) Follingstad, D. R., Wright, S., Lloyd, S., & Sebastian, J. A.(1991) sex differences in motivations and effects in dating violence. *Family Relations*, 40(1), 51-57.
- 20) Gray, H. M., & Foshee, V. (1997). Adolescent dating violence : Differences between one-sided and mutually violent piofi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1), 126-141.
- 21) Hockenberrys, L., & Billingham. R. E.(1993). Psychological reactance and violence within dating relationships. *Psychologecal Reports*, 73(3), 1203-1208.
- 22) Ingrassia, M. (1993). Boy meets girl, boy beats girl

- : Violence dating. *Newsweek*, 122(24), 66-68.
- 23) Karla, M., Wood, E., Desmarais, S., Verberg, N., & Senn, C. Y. (1998). Exploring negative dating experiences and beliefs about rape among youngers and older wome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7(2), 145-153.
- 24) Lejeune, C., & Follette, V. (1994). Taking responsibility : Sex differences in reporting dating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9(1), 133-140.
- 25) Lloyd, S.A.(1991). The darkside of courtship : Violence and sexual exploitation. *Family Relations*, 40(1), 14-20.
- 26) Magdol, L., Moffitt, T., Caspi, A., & Silva, P. A. (1998). Hitting without a license : Testing explanations for differences in partner abuse between young adult daters and cohabita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1), 41-55.
- 27) Makepeace, J. M. (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 97-102.
- 28) Makepeace, J. M. (1983). Life events stress and courtship violence. *Family Relations*, 32, 101-109.
- 29) Mayseless, O. (1991). Adult attachment patterns and courtship violence. *Family Relations*, 40(1), 21-28.
- 30) O'Hearn, R. E., & Davis, K. E.(1997). Women's experience of giving and receiving emotional abuse :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3), 375-391.
- 31) O'Kee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546-568.
- 32) O'Keefe, M. (1998). Factory mediating the link between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1), 39-57.
- 33) Patton, W., & Mannison, M. (1995). Sexual coercion in high school dating. *Sex Roles*, 33(5/6), 447-457.
- 34) Rappaport, K., & Burkhart, B. (1984). Personality and attitudinal characteristics of sexually coercive college mal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 216-221.
- 35) Riggs, D. S. (1993). relationship problems and dating aggression : A potential treatment targe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8(1), 18-35.
- 36) Riggs, D. S., & O'Leary, K. D. (1996).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dating partners : An examination of a caus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4), 519-540.
- 37) Ronfeldt, H. M., Kimerling, R., & Arias, I. (1998).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power and the perpetra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1), 70-78.
- 38) Rosen, K. H., & Stith, S. M.(1993). Intervention strategies for treating women in violent dating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42(4), 427-433.
- 39) Ryan, K. M. (1995). Do courtship-violent men have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a "battering personality"?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1), 99-110.
- 40) Sappington, A. A., Pharr, R., Tunstall, A., & Rickert, E.(1997). Relationships among child abuse, and psychological problem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3(4), 319-329.
- 41) Simons, R. L., Lin, K. H., & Gordon, L. C. (1998). Socialization in the family of origin and male dating violence :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2), 467-478.
- 42) Smith, J. P., & Williams, J. G. (1992). From abusive household to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7(2), 153-165.
- 43) Stets, J. E. (1992). Interactive process in dating aggression : A natio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165-177

- 44) Stets, J. E., & Henderson, D. A. (1991). Contextual factors, surrounding conflict resolution while dating : Results from a national study. *Family Relations*, 40(1), 29-36.
- 45) Straus, M.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s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46) Strube, M. (1988). The decision to leave an abusive relationship : Empirical evidence and theoretical issues. *Psychological Bulletin*, 104, 236-250.
- 47) Suarez, K. E. (1994). Teenage dating violence : The need for expand awareness and legislation. *California Law Review*, 82(2), 423-471.
- 48) Tang, C. S., Critelli, J. W., & Porter, J. F. (1995). Sexu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dating relationships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4(1), 47-53.
- 49) Thompson Jr., E. H. (1991). The maleness of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An appraisal of stereotypes. *Sex Roles*, 24(5/6), 261-278.
- 50) Ward, S. K., Chapman, K., Cohn, E., White, S., & Williams, K. (1991). Acquaintance rape and the college social scene. *Family Relations* 40(1), 65-71
- 51) Weller, S. (1992). Why is date rape hard to prove? *Health*, 6(4), 62-64.